

#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

(목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 주 예수님의 본 —

###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사시고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일

성경: 요 1:18, 4:34, 5:19, 30, 6:57, 7:18, 14:9-11, 17:4

#### I.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사시면서 하신 일은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본이다—빌 2:7-8.

A.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이 곧 그분의 일이었다—요 6:57상.

1.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하실 때 그분께는 생활과 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분의 생활이 그분의 일이었다고, 그분의 일이 그분의 생활이었다—막 1:14-45.
  - a.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사셨고, 그분의 사역을 사셨다.
  - b. 주 예수님께는 오직 한 가지, 곧 그분의 생활이 있었는데, 이 생활이 그분의 일, 곧 그분의 사역이었다—눅 4:42-43.
  - c. 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일이 그분의 생활이었고, 그분의 생활이 그분의 움직임이었으며, 그분의 움직임이 그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분의 일이었다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에 부합하는 생활, 곧 주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의 기반과 버팀목이 되는 생활이 필요하다—요 6:57하, 갈 2:20, 고후 6:3-11.

B.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고, 심지어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다—빌 2:7-8.

1. 인간 생활에서 사람의 형태를 세우고 노예의 모습을 취하는 주님의 일이 그분의 사역의 기초와 배경이었다—눅 4:14-19.
2.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생활로 말미암는 일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견고한 기반과 강한 배경이 될 일을 세워야 한다—행 16:1-3상, 딤후 4:5, 11하, 골 4:17.

C.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수행하셨다—요 1:18.

1. 그분의 인간 생활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에서 본 것은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요 14:9-11.
2.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빌 1:20-21상.

D. 주님께서 인간 생활을 사시면서 하신 일은 그분께서 아버지를 표현하시는 것을 포함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인간 생활 안에서 주님을 통해 표현되셨다—요 14:9, 7:17-18, 17:4상.

E.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아버지의 일들을 관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아버지의 일들, 곧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셨다—눅 2:43-49.

II. 주 예수님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셨다—요 17:4.

- A. 주 예수님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막 1:14-15, 38, 눅 4:18상), 사람들을 섬기셨으며(마 20:28상), 잃어버린 사람들, 곧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셨고(눅 19:1-10), 왕국을 전파하셨으며(마 4:17, 막 1:15상), 왕국의 씨를 뿌리셨고(마 13:3, 막 4:3, 26-29), 진리들을 가르치셨다(마 7:28-29, 요 8:40, 45-46).
- B. 주 예수님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자신을 위한 어떤 일이나 뜻, 말, 영광, 야심을 전혀 갖지 않으셨다—요 5:43, 10:25, 3:34상, 14:24, 7:16-18, 12:47-50.
1.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 주는 생활을 하셨다.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아들이자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아버지를 신뢰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요 10:30, 17:22, 마 14:19.
  2. 주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셨다—요 6:57상.
    - a.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다만 아버지께 의해서나 아버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분의 생활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이셨다—요 6:57상.
    - b.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유가 되셔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의해,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요 6:57하.
  3.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으로부터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자아를 부인하셨다—요 5:19, 마 16:24.
- C. 그리스도는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요 5:17.
1. 주 예수님은 결코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으며, 항상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 이것은 자아를 완전히 부인할 것을 요구했다—마 16:24.
  2.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을 때, 자신과 함께하시고 자신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아버지는 그분 안에서 살고 계셨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계셨다—요 14:9-11.
- D.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하셨다—요 10:25.
1.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신 후에, 결코 그분 자신의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셨다—요 5:43.
  2.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버지로서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하나로서 일하고 계셨다—요 10:30.
- E.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일 안에서 그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셨다—요 5:30.
1. 주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고, 자신의 견해와 의도와 목적을 거절하셨다.
  2. 주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을 조금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다—요 6:38.
  3. 주님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었다—요 4:34.
  4.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가져야 한다—롬 12:2.
- F. 주 예수님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자신의 말을 결코 한 적이 없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하심이었다—요 7:16, 18, 12:49-50, 14:10.
1. 그분은 자신의 말을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을 말씀하셨다—요 1:18.

2.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표현되셨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요 7:17-18, 46.
3.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생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하셨다—요 1:18.

- G. 주 예수님은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요 8:50.
1. 주님께는 자아를 위한 입지가 조금도 없었다—마 16:24.
  2.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요 7:18.

- H.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을 거절해야 하며, 우리의 야심을 포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그분 자신의 복사관으로 만드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만을 알아야 한다—요 12:24-26, 롬 8:2, 29, 갈 2:20, 엡 1:9, 3:11.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인간 생활에서와 땅에서의 사역에서의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데 요구된 시간은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요구된 것보다 훨씬 더 길었다. 또한 그분께서 인간 생활을 사시기 위해 일하신 삼십 년이라는 기간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 일하신 구 개월의 기간과 비교할 때 그보다 훨씬 더 길었다. 삼십 년 동안 주 예수님은 인간 생활을 사시면서 일하고 계셨다. 우리는 왜 창조주,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단지 이 땅에서 생활하시는 데 그렇게 긴 기간을 보내셨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신약의 기록에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지 못한다. 그분은 다만 사셨으며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이 곧 그분의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하실 때 그분께는 생활과 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분의 생활이 그분의 일이었고, 그분의 일이 그분의 생활이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사셨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그분의 사역을 사셨다고 말할 수도 있다. 주 예수님께는 오직 한 가지, 곧 그분의 생활이 있었는데, 이 생활이 그분의 일, 곧 그분의 사역이었다.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그것은 모두 그분의 생활과 일의 한 부분이었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살고 일하셨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말할 수 없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생활이었고, 그분의 생활은 그분의 움직임이었으며, 그분의 움직임은 그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일하셨다. 주 예수님께는 그분의 생활의 모든 방면이 동일했다. 그분께는 생활과 일 사이에 어떤 구별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생활이 그분의 일이었다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에 부합하는 생활, 곧 주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의 기반과 버팀목이 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서 주님께 참으로 유용하게 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고 심지어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음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고, 심지어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

셨습니다.”(빌 2:7-8)라고 말한다. ‘사람들과 같은 모양은 그분의 인성의 외모를 지칭한다. 그분은 외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내적으로는 신성의 실재를 가지셨다. 더욱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시어 사람의 상태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형태로 발견되었다. ‘형태’라는 단어는 외적인 모습, 외형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보여 주셨던 모습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셨을 때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빌 2:6)의 외적 표현을 노예의 모습으로 바꾸셨다. 이것은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태가 바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셨을지라도,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셨다. 육체 되심 이전의 그분은 물론 사람의 모습이 아니셨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되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발견되기 위해 사람의 형태를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일하시는 것이 필요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생에서 그런 사람의 형태를 세우는 데에 삼십 년이 걸리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그분의 일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인성 안에 살고 계시는 동안 사람의 형태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주님은 단지 짧은 기간 동안 사람과 같이 행동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삼십 년 동안 인생을 사셨으며 가난하고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생활하셨다. 주님은 그 가정에서 생활하셨을 때, 사람의 형태를 세우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은 사람의 형태를 세우는 큰일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처음 삼십 년 동안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에 대하여 기록했을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는 빌립보서의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심했음이 틀림없다. 바울은 분명히 합당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과 노예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리스도는 높이 칭송받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형태를 세우기 위해 일하지 않으셨다. 그 반대로 그분은 노예인 사람의 형태를 세우기 위해 일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그런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형태를 세우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한 일이었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충분히 완성하는 데에는 삼십 년이 걸렸다. 그분은 이 일을 끝마치신 후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나오셨다. 그분의 사역은 그분 자신을 사람의 형태로 세운 그분의 일에 기초를 두었다.

인간 생활에서 사람의 형태를 세우고 노예의 모습을 취하는 주님의 일이 그분의 사역의 기초와 배경이 되었음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주님을 섬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아닌 생활에 의해 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람의 매일의 생활에 의해 수행되는 일이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장래 봉사가 주님을 위할 수 있도록 견고한 근거와 강한 배경이 되는 일을 세우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 하나님을 선포하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하신 일의 또 다른 방면은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것이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요 1:18)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말씀(1, 14절), 생명(4절), 빛(4-5절), 은혜(14, 16-17절) 및 실재(14, 17절)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말씀은 표현되신 하나님이고, 생명은 분배되신 하나님이고, 빛은 비추시는 하나님이며, 은혜는 누림이 되신 하나님이고, 실재는 인식되신, 즉 실재화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를 통해 아들 안에서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간 생활 속에서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재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가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신성한 생명을 더 소유하며 생명의 빛으로 우리 속을 더 비추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고, 그분을 실재로 이해하며, 그분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수행하셨다. 그리스도는 목수

로서 생활하고 일하시는 삼십 년 동안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태를 세우기 위해 생활하고 계시는 동안,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들은 그분에게 단지 인성의 표현보다 더 높은 어떤 것, 즉 뛰어나고도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에서 보았던 것은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 그분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봉사의 시작이 주님을 위한 큰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신성한 원칙에 위배된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뛰어난 어떤 것, 신성한 어떤 것을 여러분 안에서 볼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 주 예수님께서 삼십 년 동안 날마다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만 생활하셨으며, 그 생활은 참된 사람의 형태를 세우기 위한 그분의 특별한 일이었다. 주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건축되셨기 때문에, 사역 하러 나오셨을 때 가장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사람처럼, 즉 자신 안에 하나님을 가진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필요가 없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된 사람이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발견되셨기 때문이다. 참된 사람이신 그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의 삼 년 반 이전에 삼십 년 동안 준비하는 일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 삼십 년은 준비하는 일을 위한 것이었다. 그 후 주 예수님은 삼 년 반 동안만 그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셨다.

### 아버지를 표현하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하신 일은 또한 아버지를 표현하시는 것을 포함한다(요 14:9).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고(5:43),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하셨으며(10:25),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6:38),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으며(3:34상, 14:24, 7:16-17, 12:47-50),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7:18).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다(요 10:30).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뜻도, 말도, 영광도, 야심도 없으셨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만을 표현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실 지라도 여전히 아버지를 표현하셨다.

아들께서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표현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표현은 아버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본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 예수님과 빌립이 주고받은 말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제자들에게 지적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는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빌립은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요 14:8)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에 대해 주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십니까?”(요 14:9)라고 대답하셨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표현되시고 보이신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아들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어 아들의 인간 생활 속에서 아들을 통해 표현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열두 살 때의 주 예수님께 적용된다. 주님은 열두 살이었을 때 사람 아이이셨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아이에게 신성한 요소가 있었음을 본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 속에서 표현되었다. 주 예수님은 실지 인생을 사셨으나 그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또한 신성한 요소와 어떤 신성한 요인들을 보게 된다. 이 생활은 사람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했다.

### 아버지의 일들을 관심하심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아버지의 일들을 관심하셨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는 열두 살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누가복음 2장 42절은 “예수님께서 열두 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

한다. 남자 아이는 열두 살이 될 때 유대인들에 의해 ‘율법의 아들’이라 불리었고, 처음으로 율법의 의무를 짊어졌다(알포드). 십이(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영원한 온전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열두 살’은 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행정과 온전히 관련되었음을 가리킨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8절까지에 따르면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으며 그분의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이 그분을 발견했을 때, 그분의 어머니는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다.”(눅 2:48)라고 말했다. 그때 주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눅 2:49)라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소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있는 ‘내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적해 준다(요 5:18). 인성 안에서 그분은 인간 부모의 아들이셨고, 신성 안에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중 신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의 신분을 본다.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일들, 곧 아버지의 권익을 관심하셨다.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525-531쪽)*

### 아버지를 사심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단지 아버지에 의해서나 아버지를 통해서 사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분의 생활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이셨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단순히 의지해 사는 도구나 삶의 수단으로 삼는 도구만이 아니셨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시는 이유가셨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유가 되셔야 한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하여 살 뿐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 생활의 이유가 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아들에게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삼십삼 년 반 동안의 아들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공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생활은 공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들의 생활에는 이유이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

### 아버지와 함께 일하심

요한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은 무기력한 사람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무기력한 사람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분을 박해했다. 그분은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요 5:17)라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종교적 관념에 따라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 불쌍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쉬고 있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끝났을지라도(창 2:1-3)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구속과 건축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요 5:19-20). 이 일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아들의 생명 주심을 포함한다. 이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행하신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셨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하셨다(요 10:25).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요 5:43), 자신의 이름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버지로서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예수님과 아버지는 떨어져서 일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로 일하셨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을 때,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다는 이런 진리는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는 하늘에 계셨다고 말하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반대된다. 경륜적으로 아들은 땅에 계셨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셨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들께서 땅에서 일하고 계셨을 때, 아버지는 그분 안에서 살며 그분과 함께 일하셨다.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요 10:30).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방식으로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

###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심

주 예수님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자신의 말을 결코 한 적이 없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말씀하심이었다. 한번은 그분께서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요 7:16)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다(요 7:18). 주님은 자신의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말씀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표현되셨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생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서 주 예수님은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직접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셨음을 계시한다. 특히 아버지께서 그분께 말하도록 주셨던 계명은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살아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계속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신다. 아들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셨을 때, 아버지는 일하고 계셨다. 아들의 말씀하심은 곧 아버지의 일하심이었다.

###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행하셨던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여러 차례 강하게 선포하셨다. 어느 날 그분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잡수시기를 청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요 4:34)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것은 특별히 그분의 양식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만족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주 예수님은 죄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그녀를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만 했다.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며 만족이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구절들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음을 분명히 가리킨다.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590-595쪽)*